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 의장, 금리 인상 속에 매파로 돌아서…추가 인상 시사
- WSJ: 연준 의장 기자회견 핵심 내용은?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7월 이후 최저치

[미국 금융]
- YahooFianace: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4.96%로 하락
- WSJ: 어제 금리 인상에도 증시는 반등
- JP Morgan: 주식과 금리의 동반 상승 국면(당분간 지속)

[중동 전쟁]
- CNBC: 트럼프 "미·이란 전쟁 끝 머지않아"… 사우디·후티 공방 속 타결 기류

[오일]
- WSJ: 연준 금리 인상에 유가 하락… 브렌트유 2.4%·WTI 1.6% 하락

[트럼프 관세]
- WSJ: 트럼프, 캐나다 EU 준회원 가입에 "적대 행위"… 추가 관세 위협

[인공 지능]
- Politico: 젠슨 황 "AI, 소셜미디어처럼 규제 안 돼…관련 제품을 규제해야"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미 반도체 인력난 심화… 삼성·TSMC 등 인력 확보 비상

[트럼프 IEEPA 관세 환급 동향]
- 정산 후 80일 넘은 Entry는 CIT 소송이 핵심

[공급망 일일 브리핑]
- KMI 글로벌 해운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WSJ: Warsh Takes Hawkish Turn With Rate Rise and Hints of More to Come
연준 의장, 금리 인상 속에 매파로 돌아서…추가 인상 시사

- 연준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정례회의 참석자 18명 중 16명이 올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인상을 전망했다.
-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어제 수요일 0.25%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 이후에도 현재 금리 수준이 미국 경제를 조절하는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금리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지난 수개월 대비 견고한 정책적 단합을 보여줬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워시 의장의 입장과 에너지 충격에 대한 중시 반응이 긴축 기조의 장기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기사

WSJ: The Key Takeaways From Kevin Warsh's Press Conference
연준 의장 기자회견 핵심 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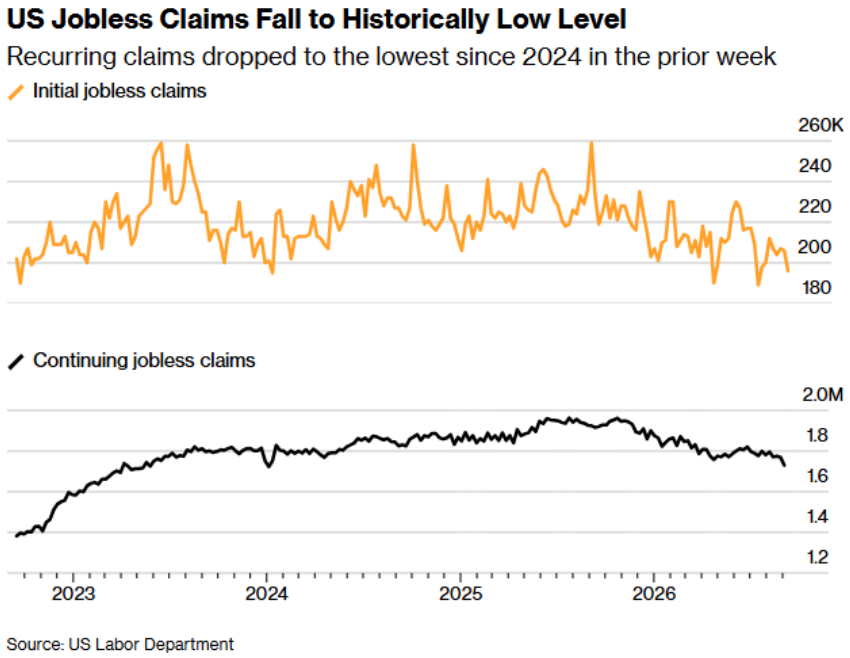
- 연준 의장이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는 여름에 물가 지표가 3% 이상 오르는 항목이 여전히 많아 더는 인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최근 고용 시장을 비롯한 미국 경제의 견조한 반등이 금리 인상을 버틸 펀더멘털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최근 국채 금리 급등세에 대해서는 우려와 달리 경제 성장 기대와 AI 투자 열풍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낙관했다.
- 한편 회견 방식도 후속 질문을 제한하며 28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냈다.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Fall to 196,000 During Holiday Week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7월 이후 최저치

-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지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미국 노동시장의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9월 12일로 끝난 주간의 관련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만 건 감소한 19만 6천 건을 기록했다. 이는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노동절 연휴가 포함되어 지표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이지만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 변동성을 줄인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 또한 20만3,250건으로5주 만에 최저치였다.



기사

[미국 금융]

YahooFinance: 10-year Treasury yield eases, oil falls to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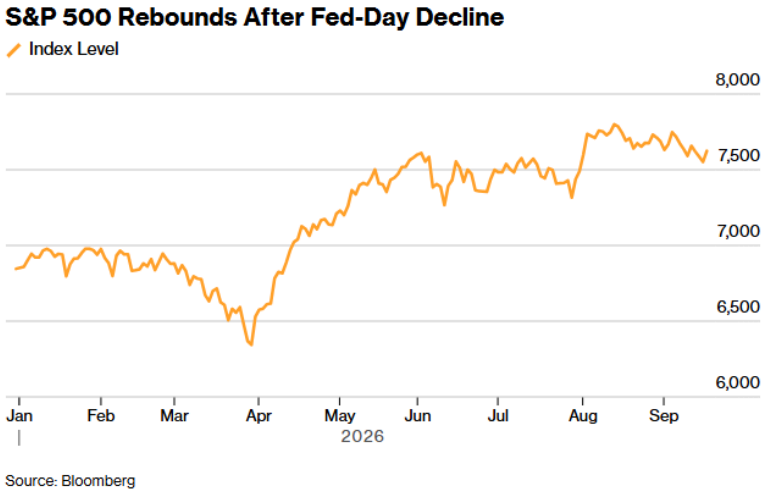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4.96%로 하락

- 투자자들은 연준이 수요일 금리를 0.25%p 인상할 것으로 미리 예상해 왔으며, 연준 관들은 이제 연내 두 번째 금리 인상까지 예상하고 있다.
- 시장 수익률의 기준점이 되는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목요일 0.05%하락하며 4.96% 선에서 형성됐다. 이처럼 10년물 금리가 상승세를 멈추고 5% 아래로 밀려나자, 고금리 압박에 시달리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식 시장 전반의 투심이 살아나며 반등세를 이끌었다.
- 또한 연준이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목요일 유가 하락과 국채 금리 진정에 힘입어 증시가 반등했다.

기사

WSJ: Why Markets Are in a Good Mood After Yesterday's Rate Hike
어제 금리 인상에도 증시는 반등

-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직후 폭락했던 주식과 채권이 이튿날인 목요일 급반등했다. 시장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과잉 반응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전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시장이 예상하는 연내 3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은 과도하다며, 연준 점도표의 중간값은 올해 단 1차례 추가 인상과 내년 동결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여기다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인플레 우려를 덜어준 점도 투자 심리 회복과 주가 가격 반등을 뒷받침했다.



기사

JP 모건 보고서: Two things are still true at the same time
주식과 금리의 동반 상승 국면(당분간 지속)

- 주식·금리 동반 상승: 고금리 지속에도 S&P 500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AI·보건의료·서비스 중심의 기업 구조 변화로 금리 인상 타격이 과거보다 약화함. 증시 충격을 주는 10년물 국채 금리 임계치는 기존보다 높은 5.5%~6.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 장기 금리 상승의 구조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누적과 국채 발행량 증가로 장기 금리 프리미엄(Term Premium) 상승이 고착화되고 있다.
- 연준의 예상보다 강한 금리 인상 가능성: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계속 상회함에 따라 시장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
- 고금리를 압도하는 AI 투자: 공모채, 사모펀드, 은행 대출 등 자금 조달 창구가 다변화되면서 고금리 환경에서도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됨.
- AI 성장의 병목 현상: 자금 조달보다는 데이터센터 인허가, 전력 확보, 공사 실행력 등 현장 제약이 실제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 AI 생산성 확대와 고용 둔화: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기대는 높으나, 이는 고용 수요 감소 및 노동 시장 약화로 연결된다.
- '체감물가(Affordability)' 정치의 부상: 미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포퓰리즘 정책 기조가 강화됨. 생활비 부담과 부의 불평등 문제로 부유세, 기본소득 논의

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 지정학적 리스크 저평가 및 고유가: 이란 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유가 강세는 2027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실질 금리의 투자 매력: 역사적 고점에 도달한 실질 금리로 인해 우량 채권의 매수 매력도가 상승함. 반면 증시는 일부 종목 쏠림 현상으로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다.

기사

[중동 전쟁]

CNBC: Trump says U.S. ‘hopefully’ nearing end of Iran war as Saudi Arabia, Houthis trade strikes
트럼프 "미·이란 전쟁 끝 머지않아"… 사우디·후티 공방 속 타결 기류

- 트럼프는 미-이란 전쟁 7개월 만에 종전에 가까워졌다며 이란이 협상에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 반면 사우디와 이란계 후티 반군이 상호 공격하며 예멘으로 갈등이 확산 중이다. 후티는 사우디 공세를 강화하며 전략 요충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 공급 차질 장기화 우려 속에 걸프 경제와 석유 시장 압박이 거세지자 사우디는 핵심 원유 파이프라인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Slip After Fed’s First Rate Hike in Three Years
연준 금리 인상에 유가 하락… 브렌트유 2.4%·WTI 1.6% 하락

-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유가가 약세를 이어갔다. 브렌트유 선물은 2.4%,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6% 각각 떨어졌다.
- 이번 하락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3.75%~4.00%로 올린 영향이다. 금리 인상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원유 수요를 줄인다.

- 여기에 사우디의 원유 수출 일부 복구 전망으로 중동발 공급 우려가 완화된 점도 유가를 낮추었다.

기사

[트럼프 관세]

WSJ: Trump Says Allowing Canada to Become Associate Member of EU Could Be ‘Hostile Act’
트럼프, 캐나다 EU 준회원 가입에 "적대 행위"… 추가 관세 위협

- 트럼프는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입 추진을 "적대적 행위"라며 유럽을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와 무역 중단을 위협했다.
- EU가 캐나다를 첫 준회원국으로 추진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는 캐나다를 "최악의 무역 파트너"라고 비난했다.
- 이어 EU가 불순한 의도로 이를 강행한다면 매우 무거운 관세를 매기거나 주요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사

[인공 지능]

Politico; Jensen Huang: Don’t regulate AI like social media
젠슨 황 "AI, 소셜미디어처럼 규제 안 돼…관련 제품을 규제해야"

-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17일 영국의 AI 정상회의에서 AI를 소셜미디어처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그는 AI가 제품이 아닌 기반 기술이라며, 현재 보안 문제는 출시 미완성 제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법자들은 원천 기술이 아닌 최종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발언은 각국 정부가 AI 규제를 논의하고 샘 올트먼 등 주요 CEO들이 개발 속도 조절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Labor crisis in U.S. chip manufacturing leaves Samsung, TSMC desperate for talent
미 반도체 인력난 심화… 삼성·TSMC 등 인력 확보 비상

- 미국 반도체 제조업계가 오는 2030년까지 최대 15만 7천 명의 숙련 인력 부족에 직면하면서 삼성전자와 TSMC 등 주요 기업들의 인력 확보가 힘든 상태이다.
- 이에 따라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인재 기반이 탄탄한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50만 달러가 넘는 보너스를 제시하며 공격적인 인재 채용에 나섰다.
- 퍼듀대와 애리조나 주립대 등 현지 대학들이 반도체 전문 학위 과정을 신설한 가운데, 주요 반도체 기업들 역시 미국 내 인재 양성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수백만 불을 투입하고 있다.

기사

[트럼프 IEEPA 관세 환급 동향]

IEEPA 관세 환급 소식

CBP 공식 발표…정산 후 80일 넘은 Entry는 CIT 소송이 핵심
미국 IEEPA 관세 환급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무역 프로그램 담당 수석국장(Executive Director of Trade Programs)인 Brandon Lord는 9월 15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Declaration을 통해 **CAPE Phase 3를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 정산된 통관건(finally liquidated entry)에 대한 CBP의 구체적인 Phase 3 운영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환급 절차는 각 통관건의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미정산 또는 정산 후 80일 이내 통관건**
기존 CAPE Phase 1을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CBP는 아직 정산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 이내인 일정한 통관건을 CAPE Phase 1을 통한 환급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정산 후 80일을 초과한 최종 정산된 통관건**
이번 Phase 3의 핵심 대상이다. 그러나 모든 수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BP가 밝힌 현재 운영방침에 따르면, CIT에 IEEPA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원고(Plaintiff)이고 해당 Entry에 대하여 CIT로부터 재정산 명령(Reliquidation Order)을 받은 경우 Phase 3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2026년 7월 30일까지 유효한 Importer of Record(IOR) 정보를 CBP에 제출한 원고는 10월 6일부터 Phase 3를 통해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이후 IOR 정보를 제출한 원고에 대해서는 CBP가 별도의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산 후 80일을 초과하여 최종 정산된 통관건의 현재 핵심 환급 경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IT 소송 → Reliquidation Order → CAPE Phase 3 환급 신청서 제출 → 환급

3. Protest가 진행 중인 통관건
Protest (이의신청)가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Phase 3 환급 자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IEEPA 관세만을 대상으로 제기된 Protest의 경우에는 성급히 취하하기보다는, CIT 재정산 명령(Reliquidation Order)과 Phase 3 자격을 먼저 확인한 후 CAPE Phase 3 환급 신청서 제출 가능 시점에 맞추어 Protest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2026년 10월 6일은 IEEPA 관세 환급 절차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산 후 80일을 넘긴 최종 정산 통관건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라면 단순히 환급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CIT 소송 제기 여부와 Phase 3 환급 자격을 지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김진정 변호사/관세사 | ACI Law Group, P.C., pa@acilawgroup.com

[글로벌 해운 브리핑]

- 후티 반군이 사우디 얀부 아람코 석유시설과 공군기지를 대규모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사우디는 메카 인근 드론 요격 후 '레드라인'을 경고했다.
- 사우디는 얀부 파이프라인 피격으로 일부 원유 화물 선적을 취소하고 오만 경유 우회 공급으로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8달러 이상으로 급등했다.
-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과량은 하루 4척 수준으로 붕괴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이 미국 계약 선박에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

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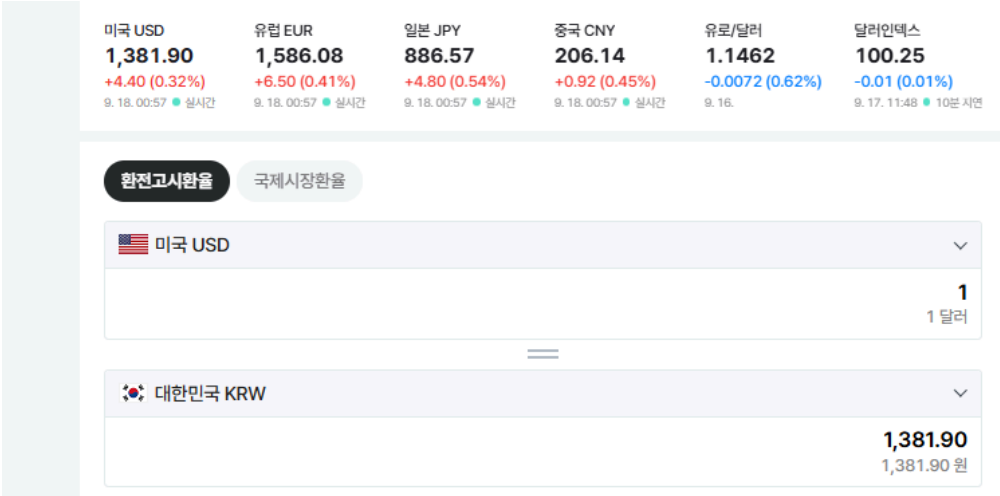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1,809.20	+346.6	+0.67%
US 500	7,638.10	+85.9	+1.14%
Dow Jones	51,791.07	+329.17	+0.64%
S&P 500	7,635.26	+83.01	+1.10%
Nasdaq	26,403.09	+424.66	+1.64%
S&P 500 VIX	15.69	-2.02	-11.41%
Dollar Index	99.98	+0.001	0.00%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31/32	5.301	-0.064
10-Year Note	4.625	27/32	4.951	-0.072
7-Year Note	4.5	5/32	4.873	-0.082
5-Year Note	4.375	25/32	4.802	-0.083
3-Year Note	4.375	2/32	4.760	-0.071
2-Year Note	4.125	1/32	4.688	-0.056
1-Year Bill	0	-1/32	4.391	-0.033
6-Month Bill	0	0/32	4.239	-0.006
3-Month Bill	0	0/32	4.065	-0.011
1-Month Bill	0	0/32	3.863	-0.005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